

1950~60년대 북한 문예미디어 지형과 사회주의 문화정치*

金成洙**

- | | |
|------------------------------------|---|
| I. 왜 1950, 1960년대인가, 문예 미디어
인가 | III. 사회주의 문예 건설과 미디어 문화정치 |
| II. 1950, 1960년대 북한 문예지의 미디어
지형 | IV. 마무리: 매체 지형의 복원에서 북조선
인민의 일상 재현까지 |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기(1953~1968년) 문학예술 미디어 지형의 계보를 개관하고, 그 문화정치적 의미를 해석하였다. 6.25전쟁부터 주체사상의 유일체제화(1967)에 이르는 1950, 1960년대 북한 문학예술의 전모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문예 미디어매체 지형을 공시적, 통시적으로 조망하였다. 북한 대표 문학지 『문화전선』(1946)-『조선문학』(1947)-『문학예술』-『조선문학』에 대한 20년 간의 전수 조사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1950, 1960년대 북한 문예 미디어의 전체 지형을 그려보았다. 특히 제2차 조선작가대회 전후(1955, 1956년)를 초점화하였다. 이 시기에 이전까지 『조선문학』, 『아동문학』밖에 없던 북한 문예장에 문학지 『청년문학』, 『문학신문』, 예술지 『미술』-『조선미술』, 『조선음악』, 『조선예술』, 『조선영화』 등이 창간되어 미디어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 이 글은 남북문학예술연구회의 2019년 여름 학술회의 발표문을 『대동문화연구』 특집에 맞춰 수정 보완한 것이다. 김성수, 「1950, 60년대 북한문예 매체 지형과 사회주의 문화정치」, 『사회주의 근대와 新매체-1950~60년대 북한문학예술의 근대성: 2019년 여름 학술대회 발표문집』, 남북문학예술연구회, 중앙대, 2019.8.31.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초빙교수

1950, 1960년대에 축출한 북한 문예지를 통해 지면이 확대되고 신인의 활동무대가 넓어졌으며 이론과 실제 비평 등 찬반토론이 활기를 띠는 등 리얼리즘 담론의 백가쟁명 양상을 보였다. 문예 미디어 지형을 조망한 결과 이들 미디어가 전후 복구 건설과 천리마운동을 통한 사회주의 기초 건설기의 문화를 다채롭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았다. 미디어가 사회주의체제 건설과 그를 미학적으로 뒷받침한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예’의 물적 토대로 기능했던 것이다. 아쉽게도 이러한 활기는 주체사상이 유일체제화된 1967년을 고비로 급격히 쇠퇴하여 1968년 대부분의 문예지가 폐간, 통합, 축소되었다.

주제어 : 북한문학, 문예지, 미디어 독법, 미디어-문학장, 사회주의 리얼리즘, 『조선문학』, 『조선예술』, 『문학신문』

I. 왜 1950, 1960년대인가, 문예 미디어인가

이 글은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기(1953~1968년) 문학예술 미디어, 문예매체 지형을 계보학적으로 개관하고, 그 문화정치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현재, 북한의 문학예술 특징은 주체문예라는 단일 담론으로 고착화되어 있다. 문학사, 문학선집, 교과서 등 정전이 된 문예 담론이 다 그렇다. 그런데 문학사, 예술사, 문화사, 각종 선집, 교재 등 정전화 이전은 어떨까? 1950, 1960년대 당시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문예 관련 정기간행물과 단행본 등 1차 사료의 실체가 주체문예 담론체계와 일치되는지 의문이다. 『조선문학』, 『문학신문』, 『조선예술』, 『조선음악』, 『조선미술』, 『아동문학』, 『조선어문』 등의 문예지와 『로동신문』, 『근로자』, 『천리마』, 『조선녀성』 등의 문예면을 살펴보면, 그 매체지형은 오늘날의 정전과 다른 문화적 실상을 보여준다. 1차 사료인 당대 문예 작품과 非문예 기사 콘텐츠를 읽고 담론장을 종횡으로 분석·해석하면 ‘주체문예의 일방적 도정’이 북한 문학예술사의 실제적 진실인지 의문이 생긴다.

문제는 한 시기의 매체 지형을 전체적으로 조망, 분석할 때의 시각과 방법이다. 『조선문학』 같이 하나의 매체를 공시적 통시적으로 매체 분석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시기의 여러 매체들이 어떤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했는지 개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매체론적 접근방식’이 문학예술문화 연구, 좁게는 문예지 연구에 관철되기 위해서는 분석방식도 방법론 내지 이론화되어야 한다. 매체 콘텐츠를 연구자의 관심사나 학문 영역별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분석하는 통념적 접근법, 관행적인 독서-해독-분석 방식으로는 문학예술의 문화사적 전체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로 북한 문학예술에 대한 개별 작가, 작품론, 혹은 부문별, 주제별, 담론별, 장르별 기존 연구가 ‘미디어 자체가 선전 메시지’인 사회주의 문화사 연구에서 『조선문학』, 『문학신문』, 『조선예술』, 『조선음악』, 『조선미술』 등의 ‘주체’를 간과해왔다.

따라서 문예지에서 개별 연구에 필요한 작품, 작가, 기사만 취사선택해서 해석하는 이른바 ‘뽕아읽기’ 방식을 버리고,²⁾ 또한 『조선문학』이란 문예지 하나만 골라 시계열적으로 70년 통사를 전수 조사했던 방식도 넘어서려 한다. 가령 1956년이란 특정

1) 김성수, 『미디어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 『조선문학』(1946~2019) 연구』, 역락출판사, 2020 참조.

2) 매체론적 분석의 모범을 보인 최수일, 『개벽』 연구를 비롯한 선행 연구의 입론이다.

시점을 횡단면으로 절합하여 『조선문학』, 『청년문학』, 『문학신문』, 『조선예술』, 『조선음악』, 『조선미술』 등 문예지 전체 지형도를 계보학적으로 그려보려 한다. 문학예술의 개별 텍스트뿐만 아니라 표지, 목차, 광고, 그림, 편집후기 같은 비문자, 비예술 텍스트까지 포함한 미디어 콘텐츠 전체를 조사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연구자들의 필요에 따라 매체가 해체되거나 파편화되는 근대학문의 분과학적 폐해를 극복 지양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³⁾

이 글에서는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 기초 건설기’(1953~1968년)를 초점화하여 문예미디어 지형을 살펴보려 한다. 통시적으로는 제1차 조선작가대회(1953.9)의 ‘부르주아미학사상 잔재’ 비판, 제2차 조선작가대회(1956.10)의 ‘도식주의 기록주의’ 비판, 당 최고지도부의 ‘자유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 비판(김일성 교시 1958.11), 문예총 재결성(1961.3)을 통한 안정화, 주체사상의 유일체계화(1967.5)와 주체문예론 형성(1968.3)에 이르는 15년간의 역동적 과정을 매체사적으로 조망한다. 1953~1968년 북한 문예장을 횡단면으로 보면 각각 ‘이념, 정책 및 노선, 조직, 주체, 매체, 미학, 담론, 실제 창작’ 등의 패러다임이 떠오른다. 이들 항목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가령 ‘반종파투쟁’(정치 용어)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좌우경화’(미학 용어)이다. 주요 쟁점은 ‘전후 처리와 부르주아미학사상 비판’, ‘사회주의 기초 건설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도식주의·기록주의 비판’,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당성 원칙 강화’, ‘주체사상 유일체계화와 5.25교시 후속조치로서의 도서정리사업’ 등이다.

왜 1950, 1960년대인가, 왜 전후 복구 건설과 사회주의 기초 건설기 문학예술인가, 그리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학인가? 주체문예 이전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싶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평화시대로 들어선 2018, 2019년 김정은 시대 문학예술의 변화 가능성을, 북한 문학예술사상 가장 역동적인 논쟁이 펼쳐졌던 1950년대 후반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이다. 바로 이때가 스탈린 사후 소비에트미학의 해빙 분위기 속에 열린 1956년 10월의 ‘제2차 조선작가대회’를 전후해서 북한 문학예술장에 ‘도식주의, 기록주의’를 비판하며 창작자의 개성, 문예의 예술성, 미학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이들 미디어 콘텐츠의 백화제방이 1967년 5월의 당 15차 전원회의 이후 주체사상이 유일체계화되자 1968년 3월을 기점으로

3) 이런 식의 최근 연구로 김은정, 「김정은 시대 북한의 출판체계와 작가 양성」, 『외국문학연구』 73,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2019 참조.

종막을 고하게 된다. 바로 이 미디어의 부침과 거기 담긴 콘텐츠의 변모과정을 이념과 미학, 조직과 주체별로 살펴보고 그 문화정치적 의미를 찾기로 한다.

II. 1950, 1960년대 북한 문예지의 미디어 지형

1953년 7월 전쟁⁴⁾이 끝났다. 그해 9월에 제1차 조선작가대회가 열렸다. 전시 중인 1951년 3월 ‘남북 작가 예술가 연합대회’를 거쳐 통합 결성된 문예총이 전후 처리과정에서 해체되었다. 임화, 이태준, 김남천⁵⁾ 등 남로당계 조선문학가동맹 출신 ‘종파’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했다고 판단한 당 지도부가 조직을 해체하고 기존의 7대 장르별 동맹 연합체 성격의 문예총 대신 문학가, 미술가, 작곡가 등 직군별 동맹 셋만 남겨놓았다. 매체 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문예총 기관지 『문학예술』(1948.4~ 53.8)이 전격 폐간되고 기존의 문학동맹에서 축소 개편된 작가동맹 기관지 『조선문학』이 1953년 10월호로 창간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때부터 주체사상이 유일체제화(1967)된 이듬해 매체 지형을 전면적으로 축소 개편(1968.3)하기까지 15년간의 1950, 1960년대 문예지의 미디어 지형을 간략하게 정리하기로 한다.

1950, 1960년대 북한 문예장의 미디어 지형은 ‘도식주의 기록주의 비판’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제2차 작가대회(1956년)가 주요 결점점이 되었다. 1956년의 문예매체 지형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작가동맹 조직 강화책으로 신설 매체 담당 조직과 구성원이 배치되었다.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산하 각 편집위원회가 이전의 『조선문학』, 『아동문학』 편집위원회에서 『청년문학』, 『문학신문』이 더 생기고 단행본 출판부로 늘어났다.

4) 현재 우리 한국은 ‘6.25전쟁’, 북한(조선)은 ‘조국해방전쟁’, 구미에선 ‘한국전쟁’, 중일에선 ‘조선전쟁’으로 부른다. 처음 이북의 인민군 대 이남의 국방군의 국지전이 확대된 내전으로 발발하여 한쪽은 중국 인민지원군의 개입에 의한 ‘항미원조전쟁’으로, 한쪽은 미군 중심의 유엔(16개국 참전, 7개국 전투) 연합군의 ‘한국전쟁’이라는 국제전으로 전쟁 성격이 변모하였다.

5) 본 논문의 지문에서는 ‘임화, 이태준, 연합’이라 한국어 표기법을 따르고, 북한 내부 논의 중에는 ‘림화, 리태준, 련합’ 식으로 조선어 표기법을 혼용한다.

둘째, 조선작가동맹의 유일 기관지였던 『조선문학』지 편집 주체의 교체와 그에 힘입은 편집방침과 체재 변화이다. 엄호석-조벽암-박웅걸 주필진은, 1953년의 창간 주체 김조규 주필(1953.10~54.12)이 黨문학 원칙을 교조주의적으로 견지했던 宣傳誌 편향에서 다소 벗어나려 하였다. 문예 기관지의 편집 지향을 ‘선전지와 문예지의 균형’으로 맞추었다. 보다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창작이 실리고 작품론과 미학적 관점, 조직 개편과 현지파견 등 각종 이슈에 대한 찬반토론이 다채롭게 전개되었다.

셋째, 기존 매체 『조선문학』(1953 창간), 『아동문학』(1947 창간) 외에 『청년문학』(1956.3), 『조선예술』(1956.9), 『문학신문』(1956.12), 『조선어문』(1956.2) 등이 이때 창간되었다. 또한 『조선문학』, 『조선예술』의 자매지 성격의 『시문학』, 『소설문학』, 『극문학』, 『조선음악』, 『미술』, 『조선미술』, 『조선영화』 등도 이 시기를 전후해서 간행되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일부 잡지는 몇 년 못 가서 다시 사라졌다. 여기에 1959년 1월 창간된 대중교양종합지 『천리마』(문예면 포함) 등이 더해져 다양한 매체 간행으로 인한 발표 지면과 장르, 콘텐츠, 필진, 독자층의 대폭 확대가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매체 수가 늘고 지형이 다양해져 사회주의 문예의 편폭이 넓어지고 리얼리즘 미학의 역동적 좌우경화, 풍부화와 함께 당대 북한 주민(북조선 인민)의 생활 감정과 일상이 보다 다채롭게 반영될 수 있었다.

2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1953~1968년 북한 문학예술사의 면모를 매체론적 시각에서 개괄한다. 우선 문학 장르지의 매체사를 면밀하게 재구성한 바, 북한의 공식 입장처럼 『문화전선』이 창간된 후 『문학예술』을 거쳐 『조선문학』으로 계승되었다거나 『문화전선』, 『조선문학(朝鮮文學)』, 『문학예술』, 『조선문학』 순으로 일직선적 매체사로 전개되었다는 기존 통념이 오류임을 확인하였다. 문예총 기관지와 산하 조직인 작가동맹(문학동맹) 기관지의 역사로 이원적·입체적으로 파악해야 실상에 가깝다.⁶⁾

예술지는 나중에 정리하고 우선 문학지부터 일별해보자.⁷⁾

6) 남원진, 「북조선문학의 연구와 자료의 현황」, 『이야기의 힘과 근대 미담의 양식』, 경진, 2011; 김성수, 「북한 초기 문학예술의 미디어 전장: 『문화전선』에서 『조선문학』으로」, 『상허학보』 45, 상허문화회, 2015; 김성수, 「매체사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 『조선문학』 연구 서설」, 『현대문학의 연구』 5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참조.

7) 익명의 심사자가 잡지별 소개는 논문 격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으나, 당시 북한 문예지 전체 지형의 1차 자료 정리 자체가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실는다. 문예지 매체사를 재조명할

분기간 『문화전선』은 1946년 7월 25일 창간되었다. 처음에는 ‘북조선예술총련맹’ 기관지, 제2호~제5집은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기관지로 나왔다. 창간호의 편집 겸 발행자는 한설야, 제2호의 편집 겸 발행인은 리기영, 제3집의 발행인은 리기영, 편집인은 박세영, 제4~5집의 발행인은 리기영, 책임주필은 안함광이다. 처음에는 ‘예총’ 기관지로 월간지를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분기간(‘계간’)으로 5호까지 간행되었다. 1948년 4월부터 타블로이드판 주간신문으로 전환되었다.

분기간 『조선문학(朝鮮文學)』은 ‘북조선문학동맹’ 기관지로 1947년 9월 창간되었다. 북문예총 기관지(誌) 『문화전선』이 제6호부터 4면짜리 타블로이드판 주간지(紙)로 전환되어 선전지 성격이 되자, 분기간 『문화전선』을 잇는 실질적 문예지 기능을 하였다. 처음 월간지를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분기간 총 2호만 나왔다. 발행인은 리기영, 책임주필은 안함광으로 편집 주체의 면모에서 분기간지 『문화전선』의 대체물이자 계승임을 짐작할 수 있다. 2집에는 안막, 정률, 이태준, 민병균, 김두용 등이 편집위원으로 가세한다.

그런데 『조선문학(朝鮮文學)』은 비문학 정론과 선전물을 거의 게재하지 않은 문학 중심 미디어이다. 이는 선전지 중심으로 아예 바뀐 『문화전선』의 주간지(紙)화에 따른 상호보완적인 문예미디어 기능을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⁸⁾ 종래의 『문화전선』은 『조선문학(朝鮮文學)』, 『문학예술』과는 별개로 4면짜리 타블로이드판 신문 『(주간)문화전선』으로 1950년 8월 23일자 113호까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분기간-월간 『아동문학』은 1947년 7월에 창간되어 현재까지 간행되는 북한 아동문학을 대표하는 잡지이다. 1947년 7월에 북조선문학동맹 아동문학분과 기관지로 창간되어 1953년까지 분기간으로 14집까지 나왔다. 1954년부터 조선작가동맹 기관지로 월간지로 전환되었다. 『아동문학』 1947년도 1집은 아동문화사에서, 1948년도 2집은 문화전선사에서, 1951년 이후에는 문학예술사에서, 1952년 이후에는 문예총출판사에서, 1953년 이후에는 작가동맹출판사에서, 1961년 8월 이후에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에서 발행되다가 1968년 4월부터 휴간되었다. 1970년 4월부터 문

때 『문화전선』에서 『조선문학』으로 일직선으로 계승된 것이 아니라 이원적 전개가 숨겨진 진실이듯, 북한 공식당국의 사후적 정전화 자체에 문제가 있기에 매체사 지형도의 복원, 재구성 자체가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8) 미상,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기관지 문화전선(주간)」, 『조선문학』 2, 1947.12, 221면 판권지 위공지 참조.

예출판사에서 다시 발간되고 1992년 이후에는 문학예술종합출판사에서 발간되고 2000년대 이후에는 문학예술출판사에서 발간되고 있다.⁹⁾

월간 『문학예술』은 북문예총 기관지(誌)로 1948년 4월, 월간지로 창간되었다. 편집 겸 발행인은 정률이다. 6.25전쟁 중이던 1950년 8월호부터 1951년 3월호까지는 발간되지 않았다. 1951년 3월 20일 ‘남북 작가 예술가 연합대회’ 결과 새로 결성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결성에 따라 『문학예술』 1951년 4월호에서부터 1953년 9월호까지 문예총 기관지로 나왔다.¹⁰⁾ 당시 편집 주체와 잡지 지향을 보면 1952년 11월호까지 임화, 이태준, 김남천 등 남로당계 조선문학가동맹 출신의 헤게모니가 작동됨을 알 수 있다.¹¹⁾

월간 『조선문학』은 원래 북조선문학동맹의 기관지였던 분기간 『조선문학(朝鮮文學)』(1947.9~12)의 뒤를 이어 1953년 10월 창간 후 2019년 현재까지 계속 간행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월간 기관지다. 창간 당시, 『문화전선』, 『조선문학(朝鮮文學)』, 『문학예술』과의 연속성 등 관계 설정이나 제호 변경 등에 대한 별도 설명 없이 그냥 ‘창간호’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1956년 1월호부터 ‘루계 101호’로 표기된 것을 볼 때, 『문화전선』(분기간) 5호, 『조선문학(朝鮮文學)』(분기간) 2호, 『문학예술』(월간) 66호 등, 전쟁기 미간행분까지 ‘루계(통권호수)’에 합산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¹²⁾

북한 문학지의 역사를 보면,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 기관지와 조선작가동맹 기관지의 이원적 간행이 이루어졌다. 즉, 문예총 기관지로 분기간 『문화전

9)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26)』, 백과사전출판사, 2001, 283면. 「『아동문학』 제1집 편집 후기에서」, 『아동문학』 1957.7; 강효순, 「『아동문학』 창간 열 돌을 맞으며」,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7.7.18; 박세영, 「『아동문학』 창간 당시의 회상」, 『아동문학』 1957.7; 송창일, 「『아동문학』 열 돌 맞이」, 『아동문학』 1957.7; 이진화, 「『아동문학』이 걸어온 길」, 『아동문학』 1962.7. 이들 자료를 정리한 원종찬, 『북한의 아동문학-주체문학에 이르는 도정』, 청동거울, 2012 참조.

10)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및 각 동맹 중앙위원」, 『문학예술』 4-1, 1951.4, 35면.

11) 김성수, 「6.25전쟁 전후시기 북한 문예지의 문화정치학: 『문학예술』(1951.4~53.9)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62, 민족문학사학회, 2016, 241~243면; 「전쟁기 문예미디어 『문학예술』(1948.4~1953.9)의 문화정치학」, 『전쟁과 북한 문학예술의 행방-북한문학예술의 지형도 5』, 역락출판사, 2018 재수록.

12) 김성수, 「북한 초기 문학예술의 미디어 전장: 『문화전선』에서 『조선문학』으로」, 『상허학보』 45, 상허학회, 2015 참조.

선』(1946.7~1947.8) 이후, 주간 『문화전선』(1948.2~1950.8)과 월간 『문학예술』(1948.4~1953.9)의 병존기가 있었고, 월간 『조선예술』(1956.9~현재)이 뒤따랐다. 조선작가동맹 기관지로는 1953년 10월 창간된 월간 『조선문학』과 1956년 창간된 월간 『청년문학』(1956.3~현재), 주간 『문학신문』(1956.12~현재)이 있다.

북한 예술사에서 ‘도식주의 기록주의 비판’ 담론이 최대 쟁점이던 1955, 1956년은 특기할만한 해이다. 이때 작가동맹 조직과 『조선문학』지가 개편되고 『조선어문』, 『청년문학』, 『문학신문』, 『조선예술』, 『조선음악』, 『미술』 등이 창간되었다. 이전까지 『조선문학』 외에 『아동문학』밖에 없던 문예지 지형이 제2차 조선작가대회(1956)를 전후해서 대폭 확대되었다. 2019년 현재까지 간행되는 『청년문학』, 『문학신문』, 『조선어문』, 『조선예술』 등이 모두 이때 창간되었다. 문학예술의 사회학적 비속화를 비판하고 예술의 상대적 특수성을 옹호하는 분위기 덕에 戰後 복구 시기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창작이 가능하였다.

이제 1955~1956년에 새로 창간된 문예지를 일별해보자.

『청년문학』은 1956년 3월 작가동맹 신인지도부에서 후보맹원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발표무대 삼아 월간지로 창간되었다. 1956년 3월 5일 창간 당시 엄호석이 책임주필, 편집위원은 박팔양, 윤세평, 황진, 김복원, 박태영, 서만일, 윤시철, 김명수, 탁진, 송고천 등이다. 잡지 성격은 신인 작가, 문학애호가, 문학통신원이 창작한 작품을 소개하고 창작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자료를 제공하며, 현역 작가의 작품 지도평이나 창작 수기를 수록하는 신진 양성과 등용문 기능이다. 초기에는 12월호까지만 간행되고 폐간되는 바람에 원고 일부가 『조선문학』 1957년 1~2월호에 함께 실리긴 했으나 1957년 3월 복간되어 1967년까지 나왔다가 중간에 휴간기를 거쳐 지금까지 계속 간행되고 있다.¹³⁾

『조선예술』은 1956년 9월에 창간된 월간 문예지이다. 창간 당시 상급 기관인 문예총이 부재했기 때문에 ‘교육문화성 기관지’로 조선예술사에서 나왔다. 1961년 10월 문예총이 재결성되자 조선연극인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에서 나왔다. 1961년 이후 『조선문학』, 『조선음악』, 『조선미술』처럼 이미 장르

13) 『청년문학』 편집위원회, 『『청년문학』 독자들에게』, 『조선문학』 1957.1, 201면 판권지면 ‘폐간’ 공지, 1956.3~ 56.12. 1957.1~2 미간행. 『청년문학』 편집위원회, 『『청년문학』 독자들에게』, 『조선문학』 1957.3, 123면 ‘속간’ 공지.

기관지가 있었던 문학, 음악, 미술 이외의 연극, 무용 기사가 주로 실려 연극인동맹과 무용가동맹 기관지 구실을 하였다. 그러다가 1950년대 중반부터 간행되었던 『조선음악』, 『미술』-『조선미술』, 『극문학』, 『조선영화』 등 장르별 문예지가 모두 폐간된 1968년 3월 이후, 문학 이외의 음악·무용·연극·영화·교예·미술을 아우르는 예술 종합지로 변모했다. 1968년 4월호를 기점으로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교예, 미술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잡지’(문예총 기관지?)¹⁴⁾로 재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¹⁵⁾

『미술』은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 1955년(?)에 창간한 기관지이다. 실물이 확인된 자료 1956년 1호(루계 5호) 발행 당시 편집위원은 정관철, 길진섭, 김종권, 선우담, 문석오, 문학수, 조인규이다.¹⁶⁾ 잡지에는 미술 이론과 실천에 관한 글들과 미술계 소식, 당시 창작된 작품 사진이 실려 있다. 소련 미술가, 비평가들이 쓴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술 관련 내용이 번역 소개되었고 소련, 중국 및 동유럽과 베트남의 사회주의 미술, 조선시대 미술사와 민족적 특성에 관한 글들이 게재되었다. 특히 김창석, 「전형론」(평론, 『미술』 1957.3, 3~12면)은 소비에트 보편미학을 북한 실정에 맞게 수용하려는 노력을 담은 평론으로 나중에 ‘도식주의 반비판 및 수정주의 비판론’(1959~1962)의 집중포화를 맞게 되는 『미학개론』(조선미술사, 1959)의 전초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미술』은, 1957년 3호(누계 제7호)를 끝으로 폐간된 『미술』지를 이어 1957년 1월 창간되었다. 창간 편집위원은 길진섭, 김용준, 김종권, 리여성, 문석오, 문학수, 박문원, 선우담, 장진광, 정현웅, 조인규이다. 『미술』지가 소련의 사회주의리얼리즘 미술을 북한 미술가들이 수입, 학습, 자기화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체라면, 『조선미술』지는 상대적으로 소련의 영향보다 카프 전통을 강조하는 월북 미술가들의 활동상¹⁷⁾을 통해 북한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매체 전략을

14) 본문 괄호 속의 ?(물음표)는 북한 자료 특성상 자료 확인을 못한 추정을 뜻한다. 이하 같음.

15) 『조선예술』, 『조선미술』, 『조선음악』, 『조선영화』 등 개별 예술장르 기관지에 대한 본격 논의는 홍지석, 신수경, 천현식, 배인교, 한상언, 전영선 등 전공자가 진행하고 있기에 기대가 크다.

16) 『미술』 1956년 1호(분기간 루계 5호, 노동신문출판인쇄소 8.10 인쇄,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1956.8.15. 발행), 편집위원: 정관철, 길진섭, 김종권, 선우담, 문석오, 문학수, 조인규, 값 60원, 간행번호 ㄱ-70357.

17) 『미술』지 편집위원 중에 정관철이 빠지고 『조선미술』 편집위원에 새로 김용준, 박문원, 정현웅이

세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길진섭이 사적으로 정리한 해방후 10년간의 주요 미술작품 성과에 대한 언급은 주체미술담론 이전, 카프 미술운동을 북한 미술의 자기 정체성 확립의 조상으로 삼으려는 사회주의적 미술사의 시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¹⁸⁾

『조선음악』은 1955년부터 1967년까지 조선작곡가동맹(1953~1961) 중앙위원회와 조선음악가동맹(1961~)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발행된 음악 전문잡지이다. 1955년부터 1956년까지는 조선작곡가동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로 분기간지였다. 1956년 4호(루계 8호)까지 작곡가동맹 발행처 명의로 분기간 간행되다가 1957년부터 월간지로 발행처 조선음악사로 발행되었다. 1958년 3호(루계 15호)부터는 발행처가 조선음악출판사로 바뀌어 1961년 9호(루계 57호)까지 발행되었다. 1957년 1호(루계 1호)부터 1959년 2호(루계 26호)까지 주필은 리히림이며 편집위원은 김옥성, 강효순, 김길학, 리조영, 이정언, 문종상, 박한규, 신도선, 안기옥이다.

문예총이 재결성된 1961년 1호(루계 49호)부터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상급기관이 달라지고 1961년 10호(루계 58호)부터 발행처도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로 바뀌었다. 기존에 조선연극인동맹중앙위원회·조선무용가동맹중앙위원회 기관지였던 『조선예술』이 1968년 4호(루계 141호)부터 예술 종합지로 바뀌면서 『조선음악』은 폐간되고 예술지가 통합되었다.

『조선음악』은 1950~1960년대의 월간 음악전문지로 각종 이론과 작가, 작품, 비평 문건이 망라되어 있다. 월간 잡지로서 기초적이면서도 충실한 1차 사료의 창고라고 할 수 있다. 1967년 유일사상체제가 확립되기 이전까지 다양한 논쟁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 지금처럼 당 정책과 문예노선이 공식화된 문건만 확인되는 음악적 콘텐츠가 아닌, ‘살아 있는 논쟁과 토론’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자료이다.¹⁹⁾ 『조선음악』지야말로 주체사상의 유일화(1967) 이전의 담론장이자 다양한 음악 논쟁의 물적 기반이기에, 非주사 사회주의적 음악 담론의 면모를 잘 알 수 있다.²⁰⁾

추가되었는데, 이들이 카프 출신이거나 월북 미술가이다. 강호, 「카프 미술부의 조직과 활동」, 『조선미술』, 1957.5, 10~12면.

18) 길진섭, 「해방후 조선 미술」, 『조선미술』, 1957.3, 4~10면.

19) 인터넷판 ‘20세기북한예술문화사전’의 『조선음악』 항목 요약(<http://www.nks.ac.kr/>).

20) 국립국악원 편, 『북한 『조선음악』: 총목록과 색인』, 국립국악원, 2016. 모범적인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되어 있다. 배인교, 「북한 음악 전문 잡지 『조선음악』 해제」, 『북한 『조선음악』: 총목록과

『조선영화』는 1957년 7월 조선예술출판사에서 창간 발행한 영화 전문지이다. 창간 당시에는 상급 기관이 없어 출판사 잡지였으나, 1961년 재결성된 문예총 산하 조선영화인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재출발하였다. 1962년부터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에서 발행하여 1997년 폐간된 북한의 영화 분야 월간지이다. 분량은 초기에는 50면, 1970년대에는 120면 내외였으나, 이후 80면 정도로 발행되었다.

이 잡지는 영화인들에게 공산주의사상을 교양하고 당 문예정책과 영화부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간되었다. 기타 영화 제작 종사자의 실무 및 기술수준을 제고시키고 영화인 중에서 당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는 인물을 선정하여 그를 모범으로 내세워 따라 배우게 하고, 제작과 상영에서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시정하는 것을 임무로 하였다. 잡지 콘텐츠는 영화 이론 및 실제 작품평이 주를 이루었다. 새로 제작된 영화 해설과 사진 자료, 연기와 제작에 필요한 각종 강좌 및 자료, 그리고 동유럽과 쿠바 등 공산권 영화계 소식 등도 실렸다. 물론 당 정책과 관련 된 영화 이외의 논설 등도 게재되었다.

1957년 7월 20일 창간 당시에는 조선예술출판사, 1958년 4호부터 조선예술사, 1962년부터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1968년 3호까지 나오고 폐간되어 종합예술잡지 『조선예술』에 통합되었다. 1984년 4호부터 문예출판사에서 속간되었고 1992년 3월부터 문학예술출판사에서 발행되었으나, 1997년 10호까지 나오고 다시 폐간되어 2019년 현재 『조선예술』에 재통합되었다.²¹⁾

『문학신문』은 1956년 12월 6일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機關紙로 창간된 주간신문이다. 편집위원은 윤세평(주필), 리호남, 박석정, 박영근, 박태민, 박팔양, 백석, 서만일, 신동철, 윤두현, 정춘기, 추민, 탁진 등이다.²²⁾ 1956~1958년에는 주 1회, 1959~1968년에는 주 2회 4면으로 간행되었었다. 『문학신문』은 1968년 3월 1일(1053호)자로 ‘5.25교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폐간되었다. 1985년 2월 15일(또는 1월 15일)부터 『문학통보』라는 제호로 발간되다가 1986년 9월 30일부터 『문학신문』으로 복간되

색인』 참조. 국내외에서 구한 통권 4호(1955-4 분기간)~118호(1967.11 월간)의 서지를 꼼꼼하게 정리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조선미술』(홍지석 외), 『조선영화』(한상언)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대가 크다.

21) 인터넷판 ‘20세기북한예술문화사전’의 『조선영화』 요약(<http://www.nks.ac.kr/>). 한상언영화연구소에서 기사목록작업을 하여 『근대서지』 20(2019 하반기)에 게재하였다.

22) 「편집위원」, 『문학신문』, 1956.12.6.

어,²³⁾ 2019년 현재까지 월 3회, 연간 36회 발간되고 있다.

『문학신문』은 월간지나 분기간지와는 달리 문예 외적 정치상황 변화에 기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주간신문의 미덕을 지녔다. 먼저 있었던 4면짜리 타블로이드판 『(주간) 문화전선』이 선전지 편향으로 전쟁 중 중도 폐간된 것과 달리, ‘도식주의 극복’이라는 1956년 당시의 시대정신에 맞게 『조선문학』 등 다른 문예 매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성격의 논쟁적 기사를 실시간으로 다룰 수 있었다. 이러한 미덕 때문에 당시 예술장의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 동향을 파악하는데 유익하다.²⁴⁾ 신문에는 문학뿐만 아니라 타 예술장르 기사도 적잖이 실렸다. 문학 예술 7개 장르를 망라했던 문예총 해체(1953.9) 후 작가, 작곡가, 미술가 3개 동맹으로 대폭 축소된 탓에 발표지면을 잃었던 연극, 영화 등 타 장르의 관련 기사도 실었다. 1961년 3월 작가동맹이 여타 예술가동맹들과 합쳐 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재결성된 후에도 문예총 중앙위 기관지 신문이 따로 없기에, 문학 외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무용, 교예 등 예술 전 장르 기사도 싣고 있다.²⁵⁾

Ⅲ. 사회주의 문예 건설과 미디어 문화정치

1950, 1960년대 문예지의 미디어 지형 변모는 당연히 문예 이념과 조직, 주체 변화의 미디어적 반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장에서 정리한 문예미디어 지형의 물질 기반과 그 의미를 정리해보자.

1951년 3월 11~12일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 결정에 따른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과 남조선문화단체총련맹 간의 남북연합 중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남북 조선 문화단체의 합동으로 새롭게 발족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23) 남원진, 『이야기의 힘과 근대 미담의 양식』, 경진, 2011, 82~114면.

24) 김성수, 「사실주의 문예비평의 전개와 『문학신문』-1950~1960년대 북한문학의 동향」, 『아시아문화』 8,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2 참조.

25) 『문학신문』(1956~2019) 총 2400여 호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리 중이다. 1956~1967년(1035호)의 ‘주요’ 기사목록을 정리했던 기존 DB(김성수 편, 『북한 『문학신문』 기사목록: 사실주의비평사 자료집』,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를 대폭 확장하여 ‘전체’ 콘텐츠 목록(2400여 호)을 3개년 계획으로 정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 떨어져있던 남북 조선 문학예술인들을 단일적 조직에 굳게 집결시키려는 목적을 띠고 있었다.²⁶⁾ 전쟁기의 통합 문예총의 해계모니는 임화, 이태준, 김남천 등 남로당계 옛 조선문학가동맹 출신이 쥐게 되었다. 가령 문예총 결성 직후 열린 제1차 중앙상무위원회 성원을 보면 한설야, 이태준, 김남천, 조기천, 임화 등 5인이다. 이들 중 얼마 후 폭사한 조기천을 빼면 누가 봐도 임화 계열의 해계모니가 크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²⁷⁾

1952년 11월, 남로동계에 대한 당 차원의 반종파투쟁이 전개되었다. 1953년도에 들어서자 문학예술인들은 ‘모든 것을 민주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으로!’라고 한 김일성 교시와 당 정책 구호에 따라 창작사업 방향을 새로운 현실로 변환하여 문학, 미술, 작곡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다. 많은 작가, 예술가들이 ‘현지파견’되었다. 전후 인민경제복구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노동체험을 하는 한편 노동계급 전형을 형상화하는 데 앞장섰다.

1953년 9월 ‘전국 작가 예술가 대회’가 열렸다. ‘대회 결정서’에는 “전체 작가 예술가들은 현실의 거대한 전변 속에 대담하게 들어가 로동계급의 실지 생활을 체득할 것이며 그들에게서 배움과 동시에 그들을 교양하며 로력 혁신자들의 위훈을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전체 인민들에게 보여 주며 우리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로력을 사랑하며 로동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고상한 도덕성으로 교양할 것이”며, “문예총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작가 동맹, 미술가 동맹, 작곡가 동맹 등의 독립적인 지도 기관으로 개편할 것을 결정”²⁸⁾하였다.

이는 1952년 말의 당 중앙위원회 제5차 및 제6차 전원회의²⁹⁾를 ‘계기’로 “문학예술의 개화 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쳐온 미제의 고용 간첩 박현영, 리승엽, 림화도당과 그와 결탁한 리태준, 김남천 등 반동 부르조아 작가들을 적발 폭로하고 그들이 뿌려놓은 부르조아 반동사상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결과로 평가된다. 결국 전시 개최된 남북 문학예술 연합대회로 결성된 문예총의 ‘림화

26) 『조선중앙년감 1951~1952년』(1949.9~1950.6), 조선중앙통신사, 1952.11; 『조선중앙년감 1953년』(1951~1953), 조선중앙통신사, 1954; 한설야,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의 총화와 문학예술인들의 당면과업 요지」, 『로동신문』 1951.3.20, 2면.

27) 미상, 「조선문예총 제1차 중앙상무위원회 개최」, 『로동신문』 1951.3.26, 1면.

28) 「전국 작가 예술가 대회 결정서」, 『조선문학』 1953.10(루계 74호), 136~137면.

29) 공식명칭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1952.12.15~18)이다.

리태준 일파’를 ‘부르조아미학사상 잔재를 지닌 종파’로 규정하여 비판, 숙청한 후 1953년 9월 문예총 해체와 기존 7개 장르 동맹 연합체에서 3개 장르 종사자 직맹 형태로 축소하는 권력투쟁을 한 셈이다.

그런데 1차 작가 예술가 대회(1953.9)의 ‘부르조아미학사상 잔재’ 비판은 우경화된 종파 축출이라는 명분과 달리 많은 문제를 초래하였다. 급작스럽게 인위적으로 문예장의 조직, 주체를 대거 숙청, 배제한 데 따른 후유증이 컸다. 즉, 문예장의 급격한 좌경화와 비예술적 강제에 의한 예술의 왜곡과 창작의 질식, 주체(창작가, 비평가 등)의 인위적 배척 등으로 문학관 예술관이 황폐화되었다. 이러한 공백을 메꾸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경주되었다. 문예지의 신인 특집과 작가학원 창립(1954)을 통해 신인 작가와 예술가를 단기속성으로 양성하였다. 나아가 문학주의, 예술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등 우경화하지 않고 오로지 당과 지도자에만 충성하는 새로운 문예 주체를 발 빠르게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되었다. 신인 창작자 양성책으로 생산현장 노동계급 속에서 문예씨클원, 예술선동대원 등 신인을 발굴하고 아예 아마추어 예술을 존재증명하기 위하여 ‘군중문화, 군중예술’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에 신인만을 위한 전용 발표무대로 『청년문학』지를 창간한 셈이다.

1955, 1956년이 되자 1953년 이후의 문예장 좌경화가 초래한 여러 문제가 노정되었다. 1956년의 급격한 정세 변화³⁰⁾에 힘입어 ‘도식주의 기록주의 비판’을 구호로 하는 제2차 작가대회(1956.10)가 열렸다. 전후의 급진적 좌경화는 동력을 상실하고 문예장이 전면 개편되었다. 먼저 조직이 개편되었다. 작가동맹 조직 강화책으로 신인지도부가 신설되었다. 신인지도부장은 리효운, 의원은 리맥, 박태영, 송고천, 송봉렬, 송영, 안함광, 조중곤, 한태천 등이다. 한편 1차 작가대회 때 남로당계 숙청의 일환으로 과잉 축소된 작가동맹의 산하 장르 강화책으로 고전문학분과와 남조선문학분과가 신설되고 문예지가 여럿 새로 창간되었다. 고전문학분과는 위원장에 신구현, 위원에 김승구, 김하명, 고정옥, 윤세평, 조령출, 조운 등이 배치되었다. 남조선문학연구분과는 위원장에 리갑기, 위원에 강효순, 김명수, 리복명, 박팔양, 송영, 조벽암 등이 배치

30) 사회주의 진영의 절대적 상징이었던 스탈린이 1953년 죽자 격렬한 권력투쟁 끝에 열린 소련의 제20차 당대회(1956)에서 개인숭배 배격과 교조주의 비판을 모토로 한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섰다. 이는 북한에도 큰 영향을 미쳐 개인숭배 배격과 교조주의 비판을 구호로 삼은 제3차 조선노동당대회(1956)가 열렸고 곧이어 ‘8월 종파사건’이 벌어져 북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투쟁이 전개되었다.

되었다.³¹⁾

조직 개편 다음으로 문예지가 여럿 창간되고 문학예술장이 대폭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이념적 다양화와 창작과 비평의 질적 변화가 뒤따랐다.³²⁾ 특히 전후 처리과정의 ‘부르주아미학사상 잔재와의 투쟁’ 명목 하에 이루어진 반종파투쟁 때문에 위축되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 담론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변모가 나타났다. 장르별 주제별로 다양한 창작이 이루어지고 찬반토론이 난무하는 논쟁 덕에 종래의 고답적인 당 문예 원칙 고수³³⁾ 대신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풍부한 해석이 가능해졌다.

문예미디어의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조선문학』지가 대폭 개편되고 『조선어문』, 『청년문학』, 『문학신문』, 『조선예술』, 『조선음악』, 『미술』 등이 창간되었다. 이전까지 『조선문학』 외에 『아동문학』밖에 없었던 미디어 콘텐츠가 이들 창간으로 말미암아 물적 양적으로 풍부해졌다. 이들 ‘콘텐츠로 경쟁하는 여러 문예지’라는 물적 기반을 토대로 삼아 1956~1967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역동적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다종다양한 기획 주제와 작가론, 작품 찬반 평 및 그로부터 촉발된 미학 논쟁 같은 메타비평으로 확산되어 가히 백화제방 양상을 보였다. 가령 예술의 특수성과 당문학 원칙의 길항관계를 유감없이 보여준 ‘도식주의, 기록주의 비판’ 논쟁(1956~1958년)이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대논쟁’을 통해 북한 문예장의 양적

31) “1956년도에는 동맹 조직 사업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던 바 25명의 정맹원과 24명의 후보 맹원이 새로 가맹하였다. 3월에는 동맹 기관지 『청년문학』(월간 잡지)이 창간되었으며 동맹 직속 작가 학원에서는 1956년 2월 제2기생 32명(산문반 8명, 시반 7명, 극문학반 7명, 아동문학반 6명, 평론반 4명)을 졸업시키고 다시 제3기생으로부터 수업 년한을 1년으로 연장하여 종래의 재직 간부 양성 사업 형태에서 전문 수업제로 개편하였다. 1956년 중에 동맹 각 분과 위원회와 각 도 지부(반) 및 『청년문학』과 『아동문학』에 의하여 지도된 신인 수는 7,273명에 달하였다. 그 중 24명이 동맹 후보 맹원으로 되었고 이 기간 지도된 작품 편수는 1만 3,873편에 달하고 있는바 하정희의 단편소설 『신입 교원』, 석윤기의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 정기영의 동극 『체육단원』 같은 우수한 작품들이 발표되었다.” 1956년도 문예활동을 총정리한 『조선중앙연감 1957』, 조선중앙통신사, 1958, ‘문학’ 항목 참조.

32) ‘도식주의 기록주의’ 논쟁의 매체사적 의미 관련 내용은 고자연·김성수, 「예술의 특수성과 당문학 원칙-1950년대 북한문학을 다시 읽다」, 『민족문학사연구』 65, 민족문학사학회, 2017 해당 부분 요약.

33) “맹원들이 창작한 회화, 조각, 공예, 그라휘크, 무대미술 등 각 분야에 걸친 미술 작품들은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 완수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우리 근로 인민들을 최후 승리로 불러 일으키며 인민들을 사회주의와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육 교양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미상, 「조선 미술가동맹 중앙 위원회 제17차 상무 위원회」, 『미술』, 1956.1, 65면.

질적 역량은 한층 발전할 수 있었다.

북한문학예술의 역사적 흐름을 볼 때 매체사적으로 볼 때 가장 유의미한 시기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대논쟁’이 활발하게 펼쳐졌던 19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초까지였다. ‘도식주의 비판’ 논쟁과 반비판,³⁴⁾ ‘우리나라 문학에서 사실주의·비판적 사실주의·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발생·발전,³⁵⁾ 민족형식과 ‘민족적 특성’,³⁶⁾ ‘천리마 기수’의 형상, ‘혁명적 대작 장편’ 창작방법론³⁷⁾이 대대적으로 논란되었다. 온갖 쟁점이 월간 『조선문학』, 분기간(격월간) 『조선어문』, 주간 『문학신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백가쟁명으로 전개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은 ‘사실주의·비판적 사실주의·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발생·발전’ 논쟁이다. 이들 논쟁의 핵심은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의 한반도 문학 예술사의 전개과정에서 사실주의=리얼리즘이 언제 발생하여 어떻게 발전했는지 따지는 것이었다. 논쟁은 엥겔스부터 고리키, 즈다노프에 이르는 리얼리즘 문예이론에 대한 미학 원론적 해명과 한반도 역대 작가와 실제 대표작에 대한 미적 작품론 순서로 7,8년간 진행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9세기 최치원 등 6두품 지식인의 사실주의 발생설: 고정옥, 동근훈, 권택무(윤기덕, 고대 리얼리즘 신화적 리얼리즘)

-
- 34) 김성수, 「전후문학의 도식주의 논쟁-1950년대 북한 비평사의 쟁점」, 김철 외 공저, 『한국 전후문학의 형성과 전개: 문학과논리 제3호』, 태학사, 1993 참조.
- 35) 「『작가동맹에서』(고정란)-조선에서의 사회주의 사실주의 발생 발전에 대한 연구회」, 『조선문학』, 1956.6, 210면 참조; 김성수, 「우리 문학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발생」, 『창작과비평』 67, 창비, 1990; 김성수, 「근대문학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발생: 1950, 1960년대 북한 학계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발생 발전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성수 편저, 『우리 문학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논쟁』, 사계절출판사, 1992 참조.
- 36) 권순궁, 「우리 문학의 민족적 특성」, 권순궁·정우택 공편, 『우리 문학의 민족형식과 민족적 특성』, 연구사, 1990; 이상숙, 「북한문학의 ‘민족적 특성론’ 연구: 1950~1960년대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참조.
- 37) 김성수, 「장편소설론의 이상과 ‘대작장편’ 창작방법론쟁-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논쟁(3)」, 『한길문학』, 한길사, 1992; 남원진, 「혁명적 대작의 이상과 ‘총서’의 근대소설적 문법」, 『현대소설연구』 40, 현대소설학회, 2009 참조.

12~14세기 이규보, 이제현, 윤여형 등 신흥사대부의 사실주의 발생설: 한룡옥,
한중모, 안함광(‘사대부 리얼리즘론’, ‘김시습 현실주의론’)
18~19세기 박지원 정약용 등 실학과 문인의 사실주의 발생설: 김하명, 현종호,
(윤기덕, 17세기설). (‘실학과 리얼리즘’)
1910년대 비판적 리얼리즘 발생설: 엄호석, 최탁호, 한중모, 안함광
1920년대 비판적 리얼리즘 발생설: 김해균, 문상민, 리응수
1920년대 비판적 리얼리즘 발전: 나도향, 김소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맹아: 최서해의 「탈출기」(논쟁), 이상화의 일부 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발생: 조명희 「낙동강」, 한설야 「과도기」, 이기영 「원보」
「민며느리」, 송영 「일체 면회를 거절하라」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발전: 이기영 「서화」·「고향」, 한설야 「황혼」, 강경애
「인간문제」³⁸⁾

논쟁을 통해 리얼리즘론의 인식이 제고되고 우리 문학사 전체를 아우르는 각 시기
별 대표 작가,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심화되어 미학적 체계를 갖춘 문학사
서술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논쟁은 곧바로 북한 문학의 ‘민족적 특성’, ‘천리마
기수 형상’, ‘혁명적 대작 장편’ 논쟁으로 이어졌다. 당시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 괄목
할 생산력 발달을 보였던 토대를 문학예술이 반영하여, 리얼리즘 미학이 소련 수입품
이 아니라 북한(조선) 현실에 근거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실학과 문인
박지원의 한문소설 「예덕선생전」이 그런 노동 찬가가 사실주의문학의 민족적 전통으
로 받아들여진 배경이 그런 경우이다. 1950, 1960년대 ‘천리마 기수’라는 노동영웅의
모델을 소련의 노동영웅 스타하노프³⁹⁾가 아니라 예덕선생 같은 우리 고전 전통에서
찾으려는 주체적 시각을 보였다.⁴⁰⁾

이를 두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사상과 사회주의적 사실

38) 김성수, 앞의 1990 논문; 앞의 1992 논문 등 참조.

39) 북한의 ‘천리마운동’, 중국의 ‘대약진운동’이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의 전례를 따른 것이라는 류길
재의 견해가 있다. 그런데 채광 생산목표의 14배를 달성한 탄부 스타하노프 따라 배우기 운동과
비교해서 경제 생산 독려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에 기반을 둔 사상 개조까지 이룬 점에서 천리마운
동 특유의 문화정치적 독창성을 고려해야 한다. 류길재,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경제건설: ‘스타
하노프운동’ 및 ‘대약진운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3, 43~78면 참조.

40) 권순궁, 앞의 1990 논문 참조.

주의 미학의 좌우경적 역동성⁴¹⁾으로 전반적 성격을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950년대 후반 북한 문학예술장의 사실주의 논쟁에서 1930년대 카프 비평가들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창작방법론의 ‘조선적 수용’이나 해방직후 서울의 조선문학가동맹과 평양의 북문예총 이데올로그들이 보인 정치 편향의 한계가 미적 자율성 측면에서 질적으로 극복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북한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역사적 합법직성, 정통성을 미학적으로 논증하려는 북한 학계, 창작자들의 이론적 수준이 최고조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학에 대한 논쟁의 현실적 물적 토대가 갖춰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리얼리즘 논쟁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가 공교롭게도 1958년 8월 북한 전역이 사회주의적 사회경제적 토대가 완성된 전후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1950, 1960년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대논쟁은, 1930년대 카프의 창작방법 논쟁의 前史를 계승한 점도 없지 않지만 그때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된다. 미학 논쟁이 소련 수입품의 수용 여부를 둘러싼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주의 토대를 건설한 경험에 근거한 현실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문예미디어 지형도와 관련해서 의미 부여하자면 북한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예술의 기초 건설에 1955, 1956년에 촉출한 문예지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뜻이다. 즉, 『조선문학』, 『조선예술』, 『조선미술』, 『조선어문』, 『문학신문』 등 다양한 문예매체가 사회주의 문예 건설기의 미디어 문화정치가 펼쳐지는 데 창작자에겐 지면을 제공하고, 당과 문예정책 당국에겐 선전시스템 확산이라는 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했다는 사실이다. 북한 전역에서 협동농장과 공장관리제가 완성됨으로써 사회주의체제라는 사회경제적 토대가 확립되고 그 토대 위에서 문학예술의 사실주의 미학이 창작과 비평, 선전 유통에서 현실적 힘을 얻게 만든 미디어, 매개체가 바로 이들 문예지들이었다. 때문에 이때가 북한 문예장의 화양연화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이다.

41) 김성수, 「사실주의 비평논쟁사 개관-북한 비평사의 전개와 문학신문」, 김성수 편저, 『북한 문학신문 기사 목록-사실주의 비평사 자료집』,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김성수, 「1950년대 북한 문학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현대북한연구』 3, 북한대학원, 1999 참조.

한편, 한설야, 이기영뿐만 아니라 박세영, 송영, 강호, 이갑기 등에 의해서 북한 문예의 조상이자 전사로 일제 강점기 프로문예운동 조직인 카프가 예술사적 전통, 정통성의 명분으로 소환되었다.⁴²⁾ 가령 다음 글을 보라.

카프 미술가들은 조선 민족해방운동과 근로대중의 계급투쟁 과정에서 제기 되는 현실적인 요구에 언제나 충신했다. 파업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뼈라를 쓰고 속사화를 그렸으며 소작쟁의를 고무하기 위하여 포스타와 만화를 그렸다. 카프의 기관지 『예술 운동』과 『집단』, 그리고 소년 잡지 『별나라』와 『신소년』의 표지며 삽화며 만화며 꺾을 그렸다. 카프 작가들의 작품을 더 의의있게 만들기 위하여 단행본의 표지 장정을 했고 진보적 연극의 정치-사상성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하여 무대 미술에 정력을 기울였다. 이것들은 카프 미술부의 빛나는 업적으로 되고 있다.

(중략) 카프 미술부는 당시 일부 미술가들이 진보적 경향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섭하며 자기 주위에 조직적으로 묶어세우는 사업을 약하게 진행한 결함이 있기는 했으나 해방 전 혁명적 미술의 눈부신 활동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카프 미술가들의 전투적 투쟁 자취로 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카프 미술가들의 창작상 성과는 미술에 있어 사회주의 사실주의적 창작방법의 길을 명백하게 열어 놓았다.

카프 미술의 혁명적 전통은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의 미술에 계승되어 조선로동당의 올바른 문예정책 밑에서 찬란한 개화 발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오늘 우리나라 미술은 조선로동당의 문예로선에 충실히 립각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사실주의 창작 방법에 의거하여 인민 대중을 사회주의 정신과 고상한 품성으로 교양하는 데 있어 막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⁴³⁾

1956~1960년까지 한설야, 이기영, 박세영, 송영, 강호 등이 중심이 되어 카프 창건 30주년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주요 문예지에 관련 특집과 회상기 기획이

42) “조선 민족문학의 고귀한 문학 유산-특히 ‘카프’ 문학의 혁명적 전통을 천명하며 그를 계승하는 사업에서도 평론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광범한 작가들이 동원되었는바 15편의 평론이 발표되었으며 7회의 연구회, 10여회의 강연회가 조직 진행되었다.” 1956년도 문예활동을 총정리한 『조선중앙연감 1957』, 조선중앙통신사, 1958, ‘문학’ 항목 참조.

43) 강호, 「카프 미술부의 조직과 활동」, 『조선미술』, 1957.5, 12면.

지속적으로 실렸다. 카프의 1922~1934년 문예운동 활동기 중에서 임화, 김남천 등 ‘파스쿨라-카프 해소파-조선문학건설본부-조선문학가동맹’으로 이어지는 남로당계를 배제하고 ‘염군사-카프 비해소파-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으로 이어지는 북로당계를 정통으로 자임했던 것이다. 강호의 회상기처럼 카프 예술운동의 전통은 해방 후 북한 예술에 정통으로 계승되어 당의 문예정책 아래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방법이란 구체적 미학으로 찬란한 발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더욱이 미술가의 이런 회상은 북한 문예장 전체를 볼 때 미술뿐만 아니라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등 타 예술장르도 함께 진보적인 사회변혁운동의 과거 전통에 참여했다는 자랑스런 과거와 선배를 공유하게 된다. 가령 김복진 같은 예술계가 모두 존경하는 카프 선배를 회상기라는 형식으로 소환함으로써⁴⁴⁾ 1956년 이후 작가동맹-미술가동맹-작곡가동맹의 연계를 장르 연합, 노장청 세대 연합, 월북/재북 간 남북 연합 등의 다양한 통합을 꾀하려는 문화정치적 효과를 노렸을 터이다.

문제는 1958년 말부터 1967년 유일사상체계화까지의 ‘반동’이다. 당 최고지도부인 김일성 교시를 계기로 문예지를 기반으로 한 비평논쟁, 미학 담론은 가령 김창석 『미학개론』 비판에서 극명한 예를 보듯이 거대한 백래시를 맞게 된다. 도식주의에 대한 반비판과 수정주의 비판이라는 문예노선 변경은 1956년 이후 해이해진 당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당 최고지도부의 의중이 관철된 1958년 당대표자회에서 현실적 힘을 얻었다. 당은 소련파, 연안파를 종파분자로 규정, 축출하고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원칙’을 재확인하고, 수정주의와 우경투항주의를 경계하였다.⁴⁵⁾ 여기서 언급된 수정주의와 우경투항주의가 문학에 있어서 도식주의 비판과 극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작용되었다.

44) 강호, 「카프 미술부의 조직과 활동」, 『조선미술』, 1957.5, 10~12면; 한설야, 「김복진 회상기-카프와 김복진」, 『조선미술』, 1957.5, 13~15면; 박팔양, 「김복진 동지에 대한 나의 회상」, 『조선미술』, 1957.5, 16~17면; 리국전, 「조각가 井觀 김복진 선생」, 『조선미술』, 1957.5, 18~19면; 문석오, 「김복진과 그의 조각」, 『조선미술』, 1957.5, 20면; 박세영, 「내가 본 조각가 김복진 선생」, 『조선미술』, 1957.5, 21면; 박승구, 「김복진 회상」, 『조선미술』, 1957.5, 22면; 선우담, 「김복진 회상」, 『조선미술』, 1957.5, 23면.

45) 김일성 교시,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릴 데 대하여」(1958.10.14);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1958.11.20); 스칼라피노·이정식, 한홍구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북한편』, 돌베개, 1987, 652~655면 참조.

1955~1958년 문예장의 쟁점은 원래 도식주의, 기록주의 비판이었는데, 1959년부터 당적 문예 원칙의 규율 여부로 쟁점이 급작스럽게 변경되었다. 동맹 간부 홍순철 등의 권위주의, 교조적 태도도 오류가 있었지만, 도식주의 비판에 편승하여 서만일, 전재경 등이 ‘당적 원칙’을 무시하고 문예 중심으로 우경화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매도되었다.⁴⁶⁾

한편, 이 시기 최대의 문제적 이데올로그 김창석의 부침은 소련 발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학의 이론과 실재를 사회주의적 보편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연대성이란 명분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1956년 전후 예술 경향의 부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처음에는 기석복, 정률 등 소련파 문예 고위 관료의 위세를 등에 업은 김창석, 변월룡 등의 소련 발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술 활동을 선진 미학의 도입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가령 1957년 전국미술전람회 전체 소감과 개별 작품에 대한 김창석의 평가가 지닌 무게감이 한 예이다.⁴⁷⁾

그러나 당 문예노선이 1958년 말의 김일성 교시 이후 수정주의적 미학사상 비판이란 명분 아래 이들 소련파를 비판하면서 한때의 이들 위세가 반종파투쟁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거의 악마화되었다. 이때 미술장의 미디어 내전이 『미술』지를 굳이 『조선미술』로 대체 간행⁴⁸⁾하고 1968년에 폐간될 때까지 미술가동맹 기관지 구실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때문에 『조선미술』지의 매체사적 의미를 사회주의 건설기 사회주의리얼리즘 미학의 우경화와 좌편향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결과적으로 1950~1960년대 북한 사회주의문학의 ‘민족적 특성’, ‘천리마 기수 등 전형’, ‘혁명적 대작 장편’ 비평 논쟁의 결말이 대부분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주체문예론으로 수렴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외면할 수 없다. 주체문예론의 강고한 구심력 속에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발생 발전’ 논쟁은 수령론에 절대적 가치를

46) 김하명, 「평론의 선도성과 전투성에 대하여」, 『문학신문』, 1959.2.5, 4면.

47) 1957년의 최고인민회의 성공을 경축하는 전국미술전람회를 전방위적으로 평가한 김창석의 장문의 평론, 「찬란한 미술 창건 도상에서」, 『조선미술』, 1957.5, 25~28면 참조, 「전국미술전람회 및 전국미술씨클원들의 작품 전람회 개관」, 『로동신문』 1957.8.14, 1면; 「최고인민회의선거 경축 전국미술씨클 전람회 수상자 발표」, 『로동신문』 1957.8.26, 3면 기사 참조.

48) 미디어 내전과 대체 간행이란 용어를 굳이 붙인 이유는 『미술』지 7호가 4월 30일 간행되기 전인 1월 25일 『조선미술』지가 창간되었기 때문에 저간의 우여곡절을 미루어 짐작한 것이다. 『미술』지 7호의 권두 평론이 김창석의 「전형론」인데, 이것이 당과 문예정책 당국의 검열에 걸린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둔 ‘주체미학’, ‘주체사실주의론’으로 편입되었다. 사회주의적 내용에 민족적 형식이란 보편 미학적 의미의 ‘민족적 특성’론은 주체문예론에서 자기중심주의 편향의 주체성 담론으로 함몰되었다. ‘천리마 기수 형상’론 등 사회주의 건설기의 노동영웅을 둘러싼 전형 담론은 오로지 수령에 대한 충성으로 점철된 ‘주체형 인물, 주체형 투사’로 귀결되었다. ‘혁명적 대작 장편’ 논쟁은 원래 천세봉의 『석개울의 새봄』, 『대하는 흐른다』, 석윤기의 『시대의 탄생』, 황건의 『아들딸』, 박태원의 『계명산천은 밝았느냐』, 윤시철의 『거센 흐름』 등 1960년대 대표 장편 창작의 이론적 토대였다. 그런데 천세봉의 『안개 흐르는 새 언덕』(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6)과 영화 <내가 찾은 길>을 김일성이 비판(1967)⁴⁹⁾하면서 혁명적 대작의 모범이 개인숭배물의 극단인 총서 『불멸의 력사』 시리즈 창작으로 넘어갔던 것이다.

1950~1960년대에 간행된 『조선문학』, 『문학신문』, 『조선예술』, 『조선음악』, 『조선미술』, 『아동문학』, 『조선문학』 등의 문예지와 『로동신문』, 『천리마』, 『조선녀성』, 『조소문화』 등 종합지의 문예면을 함께 보면, 당시 매체 지형은 오늘날의 수령론과 주체문예론으로 일관된 정전과 꽤 다른 문화사적 실상을 보여준다. 관련 1차 자료를 모아 거기 담긴 문예 작품과 비문예 기사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읽고 담론 장을 횡단적으로 종합 분석·해석하는 작업을 공동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령 1956년부터 59년에 이르는 천리마운동 초기,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풍부화로 평가되는 일련의 문예활동은 1961년 이후 자연주의, 자유주의 등 부르주아미학사상 잔재로 대부분 매도되어 문학사, 예술사, 문화사에서 그 존재가 사라졌다. 또는 같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도 수령론이나 당 정책과 문예노선 변화에 제대로 충성스레 따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수정주의, 이색사상으로 비판받아 정전에서 배제되었다. 결국 정치적으로는 종파주의, 미학적으로는 자연주의, 수정주의적 ‘우경화’로 비난받았던 것이다. 한반도적 시각에서는 리얼리즘 미학의 ‘풍부화’, ‘다양화’로 옹호될 수도

49) 당대 평판작 천세봉 장편 『안개 흐르는 새 언덕』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 <내가 찾은 길>에 대한 김일성의 비판을 계기로 ‘문예분야에서의 주체 확립’이라는 미명 하에 주체사상의 유일체계화가 촉발되었다. 김일성, 「혁명주체작품에서의 몇 가지 사상미학적 문제(1967.1.10)-예술영화 <내가 찾은 길> 첫 필름을 보고 영화예술인들과 한 대화」, 『김일성 저작집 21』,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김재용, 「유일사상체계의 확립과 북한문학의 변모」, 『한길문학』, 1991; 김성수, 「장편소설론의 이상과 ‘대작장편’ 창작방법논쟁」, 『한길문학』, 1992; 남원진, 「‘혁명적 대작’의 이상과 ‘총서’의 근대소설적 문법」, 『현대소설연구』 40, 현대소설학회, 2009 참조.

있는데, ‘부르주아 반동미학’, ‘수정주의’, ‘이색사상’ 분자라는 낙인이 찍힌 기석복, 정률(정상진), 김창석, 서만일, 리순영, 전재경, 윤두현, 신동철 등 상당수 사회주의 리얼리스트들은 문예장에서 사라졌다. 이에 개인숭배와 권력투쟁 때문에 정전에서 소거된 주체문학 이전의 사회주의 적 사실주의 문학예술의 복원과 리얼리스트의 복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⁵⁰⁾

IV. 마무리: 매체 지형의 복원에서 북조선 인민의 일상 재현까지

1950, 1960년대 문예지의 미디어 지형을 개관하려면 일정한 기준점, 좌표가 필요하다. 미디어 간행 주체인 상급기관, 예술장르와 분과, 세대, 조직 등을 기준으로 북한의 1950, 1960년대 문예매체 지형을 기관지의 상급기관과 관련지어 입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당과 내각 기관지: 『로동신문』, 『근로자』, 『민주조선』(『인민』)
- 직능단체 기관지: 『조선녀성』, 『천리마』, 『청년전위』-『로동청년』
- 문학 기관지: 『문학예술』-『조선문학』, 『아동문학』, 『청년문학』, 『문학신문』(『시문학』, 『소설문학』, 『극문학』)
- 예술 기관지: 『문화건설』, 『문화전선』, 『조선예술』(『조선음악』, 『미술』-『조선미술』, 『조선영화』), 『씨클원 문예』
- 어문학 기관지: 『조선어문』,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어문학편』
- 문화 일반 기관지: 『조소문화』-『조소친선』, 『문화유물』-『문화유산』, 『조국』, 『남조선문예』 등

북한체제의 특성상 미디어 지형의 최상위에는 당 기관지 『로동신문』(1945), 『근로자』(1948.10)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정무원 기관지 『민주조선』(1946)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근로자』, 『민주조선』은 문예면이 없기에 논외로 해도, 1945년 창간

50) ‘도식주의 기록주의’ 논쟁의 매체사적 의미 관련 내용은 고자연, 김성수, 「예술의 특수성과 黨문학 원칙-1950년대 북한문학을 다시 읽다」, 『민족문학사연구』 65, 민족문학사학회, 2017 해당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된 『정로』의 뒤를 이은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에 실린 문예 기사도 1950~1960년대 북한 문예미디어 지형에서 일정한 존재감을 갖는다.⁵¹⁾ 다음으로 조선민주녀성동맹(여맹) 기관지 『조선녀성』(1948), 대중교양종합지 『천리마』(1959) 등의 문예면도 매우 풍부한 자료 창고로 볼 수 있다.

문학예술 매체의 핵심은 북문예총 기관지 『문화전선』(1946.7), 『문학예술』(1948.4), 그리고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조선문학』(1953.10) (1947.9 북조선문학동맹 기관지 『朝鮮文學』), 『문학신문』(1956.12) 등이다. 통권호수가 각각 864호, 2440호에 이르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디어이다. 『조선문학』 하위 장르지로 『아동문학』이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1947년 7월 북조선문학동맹 아동문학전문분과 기관지로서 분기간으로 창간되었다가, 1954년부터 조선작가동맹 아동문학분과 기관지로서 월간으로 지금까지 간행되고 있다. 반면 작가동맹 하위 분과 장르지였던 『시문학』, 『소설문학』, 『극문학』 등은 1950년대 간행되었다가 50년대 말부터 1960년 사이에 다 폐간되었다. 작가동맹 정맹원의 활동무대가 『조선문학』이라면, 문학후비대인 신인 등용문이자 후보 맹원 활동무대인 『청년문학』(1956.3)이 있다. 작가동맹 신인지도부 기관지로서 지금까지 간행되고 있다.

문학 이외의 예술 장르지로 1950년대 미술가동맹 기관지인 『미술』(1956), 『조선미술』(1957), 작곡가동맹 기관지인 『조선음악』(1955), 기타 무용과 연극 장르지 『조선예술』(1956), 영화장르지 『조선영화』 등이 있었다. 1968년 이후 『조선예술』지가 문학 이외의 예술 장르를 아우르는 미디어로 간행되고 있다.

한편, 문예지는 아니지만 어문학 분야 학술지로 과학원 조선어및조선문학연구소(언어문학연구소) 기관지로 창간된 『조선어문』지가 있다.⁵²⁾ 1956년 2월 격월간 학술논문집으로 창간하였다. 중간에 제호가 바뀌고 폐간과 복간을 겪었으나 2019년 3호

51) 가령 『로동신문』 1956년 10월 14~18일자 기사를 보면 제2차 작가대회의 의의와 발제, 장르별 작가별 토론 기사가 1주 가까이 30편 넘게 실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북한 역사 70년 동안 초유의 일이다. 심지어 1961년 3월 1~4일 문예총 결성 기사가 총 14개인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다.

52) 『조선대백과사전』의 해당 항목 해설에 따르면, 잡지 『조선어문』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문학 사상과 이론을 깊이 있게 해설 선전하며 학자들이 어문학부문에서 이룩한 연구성과들을 종합하여 반영함으로써 어문학부문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이론 수준을 높여 주고 나라의 어문학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고 있다. 잡지는 국내외의 광범한 언어학, 문학예술 부문 학자들과 전문가들, 대학교원들, 대학생들을 독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까지 분기간으로 통권 195호 발행되고 있다.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조선어학』과 『문학연구』로 분리, 분기간으로 발간되다가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어문연구』로 재통합되고 다시 1968년에 통권 61호로 폐간되었다. 이후 1973년부터 1986년까지 다른 학술분야와 통합되어 『사회과학』 속에 일부 발간되었다.⁵³⁾

『조선어문』은 1986년에 통권 62호로 복간되었다. 1998년 폐간된 『문화어학습』(『말과 글』 1958~1965, 『문화어학습』 1968~1997)을 흡수 통합하여 『조선어문』에 ‘조선어문’편과 ‘문화어학습’편으로 발행되었다. 2000년 『문화어학습』이 복간되자 『조선어문』 2000년 1호(2월 간행, 루계 117호)로 단독 편집된 후 2019년 3호 현재 통권 195호가 발간되고 있다. 『조선어문』이 1950, 1960년대 문예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발생, 발전 논쟁, 민족형식론과 문학사 서술 등 주요 쟁점을 다루는 물질 토대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개괄했듯이 1950, 1960년대 북한 문예 매체 지형은 전후 복구 건설과 천리마운동을 통한 사회주의 기초 건설기의 당대 사회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종합교양지든 종합 문예지든 장르별 문예지든 가릴 것 없이 1950, 1960년대 문학예술 작품과 비평논쟁, 담론을 통해 전후 사회주의체제 건설과 사회주의적 근대 레짐, 그를 미학적으로 뒷받침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자기 정립’에 초점이 맞춰졌다. 1950, 1960년대 북한사를 연구하는 정치사, 사회경제사 전공자들이 제3차 당 대회(1956) 전후의 당 정책과 8월 반종파투쟁, 사회주의적 경제 토대의 완성(1958)과 천리마운동에 주목했다면, 문학예술 연구자들은 그 사회 역사적 배경을 종횡으로 횡단하는 ‘부르주아미학사상 비판’과 ‘도식주의 비판’ 담론을 키워드로 포착했을 가능성이 크다.

1950, 1960년대 북한 문학예술 연구에서 『조선문학』, 『청년문학』, 『문학신문』, 『조선어문』 등의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가령 『문학신문』을 통해서 북조선 문학예술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한 후, 『조선문학』을 통해서 작가들의 대표작을 분석하며, 『청년문학』에 수록된 작가들의 초기작이나 창작수기를 통해서 대표작의 분석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조선어문』으로 당대적 평가가 아닌 역사적 의미나 미학적 의의를 학술적으로 정리

53) 실제로 『사회과학』지의 문예 관련 문건을 확인하니 가끔 한두 편이 실려 거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해서 문예학의 존재감이 없다고 할 정도이다.

할 수 있다. 이들 미디어 콘텐츠의 통합적 분석을 통해, 1967년 이후 유일체제화된 ‘주체문예리론’ 때문에 있었던 사실조차 외면당한 1950, 1960년대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예술의 복원 복권이 가능하다고 본다.

나아가 사회주의 문예 건설과 미디어 문화정치란 발제와 관련하여 문예지에만 시선을 머물지 말고 대중교양종합지 『천리마』, 여맹 기관지 『조선녀성』지 등 타 매체도 공동 연구하자고 제안한다. 대중지라도 꼭 문예면만 뽑아내 문예 콘텐츠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 ‘신문화사’, ‘일상사’, ‘미시사’, ‘생활문화사’란 방법론으로 ‘북조선 인민’의 일상생활을 총체적으로 복원, 의미화해서 가치 평가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김일성-김정일이란 절대권력, 지도자, 승리자의 역사가 지닌 목적론적 거시담론의 이면, 그늘에 가려진 북한 주민, ‘북조선 인민’들의 일상생활을 있는 그대로 섬세하게 재현하자는 것이다.⁵⁴⁾ 권력, 제도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총체적으로 되살리려는 의도이다. 왜냐하면 문학, 예술, 문화란 총체적 인간학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에서 문학예술이란 공산주의적 인간학, 주체적 인간학으로 재정의되었고, 그 개념 규정을 신성불가침의 자명한 진리로 강변한다. 당과 수령의 규정과 다른 설명 일체를 ‘이색사상, 수정주의, 부르주아 반동 미학사상’으로 호명하는 순간 학문적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조선문학』, 『청년문학』, 『문학신문』, 『조선예술』, 『조선음악』, 『조선미술』, 『조선영화』 등의 문예지 연구가 북한 인민의 삶과 생각, 마음을 알아보려는 일이듯이 『천리마』, 『조선녀성』의 기사, 문건, 비문자텍스트 등 콘텐츠를 꼼꼼하게 정리하면 훨씬 풍부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북한체제가 유일사상체제로 결박된 ‘정치기계, 명령수행 로봇’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을 미디어로 간접적이거나 실감나고 총체적으로 만나보자는 상상력을 새로 펴게 된다. 앞으로 한반도의 역동적 변화 가능

54) 익명의 심사자가 “미디어에 표현, 해석된 북한의 일상이나 문화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논평했는데, 『천리마』지에 소개된 북조선 어느 가족의 일상사 샘플 분석으로 보완한다. 가령 1950, 1960년대의 사회주의적 보편 일상에서 북조선만의 특수성을 ‘주체’로 유일사상 체계화할 때 평범한 가정의 어떻게 변모할지 궁금하던 차에 흥미로운 르포르타주를 찾아 다음 논문에서 분석하였다. 『천리마』잡지 기자 김봉희가 신의주시 친선동 1반에 사는 최상복 아바이네 가정을 소개한 가정탐방 르포르 『혁명화의 길에서_사회의 세포-가정』(1970.1) 사례 분석이다. 김성수, 『신한반도체제 남북 문화 교류의 미래지향적 의제: 『천리마』잡지와 북조선 인민의 일상 연구』, 『평화의 감성학: 남북문화교류의 미래지향적 의제와 대안들-남북문학예술연구회,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공동주최 2019 북한학-한반도학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성균관대학교, 2019.11.2, 특히 제3장 참조.

성이 북한사회 내부에 오래 전부터 잠재해 있다는 잠정적 기대와 전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도 구하기 힘든 60년 전 문학예술문화사 원전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입체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연구가 절실하다. 이 글은 기존 연구의 거시담론과 정전 중심의 논의를 지양하고 대신 ‘미시사’, ‘일상’, ‘생활사’라는 키워드로 문예미디어 연구를 새롭게 업그레이드⁵⁵⁾하자는 제안이자 중간 이정표라 하겠다.

투고일: 2019.10.13

심사일: 2019.12.04.

게재확정일: 2019.12.09

55) 김성수, 「『신한반도체제』 남북 문화 교류의 미래지향적 의제; 『천리마』잡지와 북조선 인민의 일상 연구」에서 북한 유일의 대중교양종합지 분석을 통한 북조선 인민의 생활사, 일상사를 새롭게 공동 연구하자고 학계에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 『로동신문』(1946~), 『천리마』(1959~)
조선문학 편찬위원회 편, 『월전 ‘조선문학’』(1946~2005), 대훈서적, 2005(영인본 전 127책)
『조선문학』(2006~2019), 『(주간)문화전선』(1948~50), 『(주간)문학신문』(1956~)
『조선예술』(1956~), 『조선음악』(1955~1967), 『조선미술』(1955~1967),
『조선중앙연감』(1949~), 『조선대백과사전』
국토통일원, 『북한의 문학예술분야 사업총화집(1947~1970)』, 국토통일원, 1974
이선영 · 김병민 · 김재용 편, 『현대문학비평자료집: 이북편(1~7)』, 태학사, 1993
김성수 엮음, 『북한 『문학신문』기사 목록: 사실주의비평사 자료집』,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구갑우 외,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전 3권), (주)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국립국악원 편, 『북한 『조선음악』: 총목록과 색인』, 국립국악원, 2016
권보드래 · 오혜진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김상환 외, 『매체의 철학』, 나남, 2005
남원진, 『이야기의 힘과 근대 미담의 양식』, 경진, 2011
민족문학사연구소 남북한문학사연구반,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 소명출판, 2014
민족문학사학회 공저, 『문학사를 다시 생각한다』(연구총서 1), 소명출판, 2018
박현호 외, 『작가의 탄생과 근대문학의 재생산 제도』, 소명출판, 2008
브뤼노 블라셀, 권명희 역, 『책의 역사, 문자에서 텍스트로』, (주)시공사, 1997
스칼라피노 · 이정식, 한홍구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북한편』, 돌베개, 1987
원종찬, 『북한의 아동문학-주체문학에 이르는 도정』, 청동거울, 2012
이기현, 『미디어로지: 사회적 상상과 매체문화』, 한울아카데미, 2003
천정환 · 소영현 외 공저,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 푸른역사, 2013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출판, 2008
한설야 외, 『제2차 조선작가대회 문헌집』,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한중모 · 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Baudrillard, J., 배영달 역, 『유희에 대하여(1979)』, 백의, 2002
Bourdieu, Pierre, 하태환 역, 『예술의 규칙: 문학 장의 기원과 구조』, 동문선, 1999
McLuhan, Marshall, 박정규 역,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1997
Ong, Walter J., 『The Orality and the Literacy』, 이기우 · 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 강성윤, 「북한의 남한연구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전문학술지와 단행본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1-2, 평화문제연구소, 2009
- 고자연·김성수, 「예술의 특수성과 黨문학 원칙-1950년대 북한문학을 다시 읽다」, 『민족문학사연구』 65, 민족문학사학회, 2017
- 김성수, 「사실주의 비평논쟁사 개관-북한 비평사의 전개와 ‘문학신문」, 김성수 편저, 『북한 ‘문학신문’ 기사 목록-사실주의 비평사 자료집』,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 _____, 「북한 초기 문학예술의 미디어 전장-『문화전선』에서 『조선문학』으로」, 『상허학보』 45, 상허학회, 2015
- _____, 「매체사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 『조선문학』 연구 서설」, 『현대문학의 연구』 5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 _____, 「선전과 개인숭배-북한 『조선문학』의 편집 주체와 특집의 역사적 변모」, 『한국근대문학연구』 32, 한국근대문학학회, 2015
- _____, 「6.25전쟁 전후시기 북한 문예지의 문화정치학-『문학예술』(1951.4~1953.9)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62, 민족문학사학회, 2016
- _____, 「‘신한반도체제’ 남북 문화 교류의 미래지향적 의제-『천리마』잡지와 북조선 인민의 일상 연구」, 『평화의 감성학: 남북문화교류의 미래지향적 의제와 대안들-남북문학예술연구회,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공동 주최 2019 북한학-한반도학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성균관대학교, 2019
- 김은정, 「김정은 시대 북한의 출판체계와 작가 양성」, 『외국문학연구』 73,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2019
- 서형범, 「기관지와 문예지의 길항-조선문학가동맹 기관지 『문학』 창간호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65, 한국문학학회, 2013
- 이상숙, 「『문화전선』을 통해 본 북한시학 형성기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3, 한국근대문학학회, 2011
- 최수일, 「1930년대 미디어 검열에 대한 讀法의 문제-『조광』의 비문자 표상(목차, 표지, 화보, 광고)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1, 민족문학사연구소, 2013
- _____, 「잡지 『조광』의 목차, 독법, 세계관」, 『상허학보』 40, 상허학회, 2014
- _____, 「1930년대 잡지 편집과 문학 독법-창간 『신동아』론」, 『민족문학사연구』 60, 민족문학사연구소, 2016
- _____, 「『중앙』과 검열의 문제 굴신-타협과 저항 사이에서」, 『민족문학사연구』 63, 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 한 효, 「조선에 있어서의 진보적 주르날리스찌까의 발달과 그 특성」, 『력사연구』(격월간) 1956-1, 과학원, 1956

North Korea's Literary Media Geography and Socialist Cultural Politics in the 1950~1960s

Kim, Seong-su

This article outlines the genealogy of literary & artistic media topography and interprets its cultural and political meaning. In the 1950~1960s, from the Korean War to the unique system of Juche Ideology(Self-reliance Ideology, 1967), the landscape of literary & artistic media was publicly and routinely view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full extent of North Korean literature and art. Based on the results of a 20-year-long investigation into North Korea's leading literary magazine, *Culture Front*(1946)→*Chosun Literature* (1947)→*Literature Art*(1948)→*Chosun Literature*(1953), the entire landscape of the North's literary & artistic media in the 1950~1960s. In particular,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Second Joseon Writers' Meeting(1956) was focused. During this period, the media has grown dramatically, with the creation of literature magazine *Youth Literature*, *Literature Newspaper*, art magazine *Fine Art-Joseon Fine Art*, *Joseon Music*, *Joseon Art and Joseon Cinema* in the North Korean literary scene, which had previously been only *Chosun literature & Children's literature*.

Through these literary & artistic magazines, the ground has been expanded, and the stage of activities of newcomers has been expanded, and discussions on pros and cons such as theory and actual criticism have been revitalized, showing signs of a back house dispute in realism discourse. Looking at these terrain, we found that these media reflected the culture of the basic socialist construction period in a variety of ways through post-war reconstruction and the Cheollima movement. It served as the material bas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socialist system and the "socialist realism literary art" that supported him aesthetically. Unfortunately, this activity rapidly declined in 1967 when the Juche ideology was monolithic, resulting in the closure, integration and reduction of most literary and artistic areas in 1968.

Key Words : North Korean literature, literary & art magazine, media reading method, media-literature field, socialist realism, *Joseon Literature*, *Joseon Art*, *Literary Newspaper*

